



보도 일시	2022. 8. 29.(월) 14:00	배포 일시	2022. 8. 29.(월) 10:00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홍재승 (044-200-2430)
		담당자	서기관 정현욱 (044-200-2366)
		사무관	송지애 (044-200-2407)

“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
-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노력 강화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8월 26일(금) 10:00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날 발표한 각 부처의 추진과제 중, 일상에서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활체감형 과제 9개에 대해,
 -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과제	소관
①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	보훈처
② 재직경력·연수이력 등 다양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범위 확대	교육부
③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인사처
④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 확대	복지부
⑤ 장애인을 위한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복지부
⑥ 정비소 방문 없이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등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허용	국토부
⑦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기준 완화(3→4층)	문체부
⑧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정범위를 의료·통신분야까지 확대(현재 공공·금융분야 제공) * 국민의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 등)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정부가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	행안부
⑨ 국가 R&D 과제 연구비 증명자료 시스템 등록 시 보관의무 면제	과기부

① (계획) **상이국가유공자라면, 교통복지카드 한 장만으로도 전국의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추진**

(국가보훈처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개정, ~'22.12)

- ▶ (현황) 상이국가유공자에게 버스·지하철 무임이용 지원을 위해 교통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 및 타 지역 이동 승차 시에는 이용 불편
- ▶ (개선)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개발 및 관련 근거 마련 등으로, 상이국가유공자가 교통복지 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지하철을 무임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산시 거주 상이군경이 서울 중앙보훈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시 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려면 거주지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카드가 서울지역에서 무임 인식이 되지 않아 상이군경회원증이나 수송시설이용증을 운전기사에게 보여주고 무임승차를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의 면박 등을 겪기도 한다. 하차 후 다시 지하철을 타려면, 우대권 발매기를 어렵사리 찾아 국가유공자증을 인식기에 대고 우대권을 발권받아 사용하게 되나, 잦은 오류로 끝내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추진 중으로, 상이국가유공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더 높은 교통복지로 유공자의 자긍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계획) **재직경력, 연수이력 등 다양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 **학습경험 인정제* 확산** (교육부 / 고등교육법 개정, ~'22.12)

* 개인이 학교교육 및 기타 영역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성취 정도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 (현황)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근무 경험 학점 인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점 인정 제약 발생*

*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인정 가능한 학점 상한, 학점인정심의회 심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시 대학의 자율성 일부 제한

- ▶ (개선) 해당 대통령령 조항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개편

서울시 인근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업하여 20 년째 자동차 관련 생산 설비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 A 씨는 못다 한 대학 생활의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4 년이라는 학습 기간과 만만치 않은 학비가 걱정되어 쉽게 진학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학습경험인정제를 적용 중인 B 대학 자동차공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자신의 재직경력과 직장 내 연수 이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빠르면 4학기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A씨는 대학 진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③ (계획)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 공무원 시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인사혁신처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22.11)

- ▶ (현황) 5·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시험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내의 성적만 유효하게 인정
- ▶ (개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기준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없음 감안)
 - ※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내년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걱정거리가 하나 줄었다.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2017년에 이미 한국사 1급을 취득했지만**, 현재 7급 공채 시험에서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있어 **재응시를 준비**하고 있던 터였다.

A 씨와 같은 부담이 있던 수험생들은 합격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익힐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반기면서,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④ (완료)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기본반 정원 확대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완료, '22.8)

- ▶ (현황)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로 운영**
- ▶ (개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정원의 30%까지 허용**

대전시에 사는 **장애아동의 어머니 A씨**는 자녀의 높은 치료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재취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집 근처에 B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B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키고자 문의를 하였으나, 현재는 **장애아동 정원이 꽉 차** 대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는 재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B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정원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남**에 따라 **A씨의 자녀도 입소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다시 재취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⑥ (완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령 개정 완료, '22.8)

- ▶ (현황)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
- ▶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추가

서울시에 사는 A씨는 장애인 아버지 B씨를 **충남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모시고 있다. B씨는 당뇨병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야** 하나,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처방받기 어렵고, 직계가족인 A씨 또한 회사생활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대리 처방을 받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B씨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A씨는 약 처방으로 인해 겪었던 부담과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되었다.

⑥ (계획) **정비소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등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12)

* Over The Air :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

- ▶ (현황) 현행 법령상 자동차 정비는 정비업체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업데이트도 정비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
 - * 유무선통신장치, 조향장치, 엔진변속기시스템, 자율주행소프트웨어 등
- ▶ (개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관련 사항은 자동차 정비 예외사항으로 규정 → 정비소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

경기도에 사는 A씨는 평소 자동차 정비·점검을 위해 **집 근처나 회사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정비를 받고 있으나, 바쁜 일과 중 시간을 쪼개어 직접 정비업체를 방문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평소와 같이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도** 정비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해졌다.

또한, 무선 업데이트의 **기능도 다양하고 업데이트 방법도 간단**하여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 **자동차 소유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⑦ (계획) **4층 펜션도 관광펜션업으로 인정받고(현재 3층 이하), 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2.9)

- ▶ (현황) 3층 이하 건축물만 관광펜션업으로 지정 가능하며,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제공(운영자금으로 30억원 범위에서 저리의 융자 가능)
- ▶ (개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층고기준을 4층으로 완화함으로써,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숙박시설 제공 확대 기대

경기도에 위치한 A펜션은 4층 건물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취사·숙박에 필요한 설비 및 바비큐장을 갖추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층고기준(3층 이하) 제한으로 인해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지 못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광펜션업 층고기준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됨에 따라 관광펜션의 개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되었다. A펜션은 이를 활용해 기존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개·보수가 완료되면 투숙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또한 보다 다양한 양질의 펜션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계획) **의료·통신 분야 서비스 신청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정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22.12)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공공·금융 분야 등에서 활용 중('21.12월 ~)

- ▶ (현황) 국민이 의료·통신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 발생
- ▶ (개선) 의료·통신 분야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 확대

※ 의료·통신 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법령 개정 이후, 기관협의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단계적 제공 예정

직장인 A씨는 최근 어머님께서 받으신 수술에 대한 보험 청구를 도와드리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당시 수술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다녀와야만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없이 병원창구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만으로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아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비단 A씨의 진단서 발급 뿐만 아니라 대리처방, 가족할인, 군인할인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각종 서비스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기관으로 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 지정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⑨ (계획)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가 R&D 과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의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22.12)

- ▶ (현황)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도 연구개발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함에 따른 행정부담 발생
- ▶ (개선) 국가 R&D 과제 관련 증명자료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보관의무 면제

A 대학은 다수의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과제 종료 시 실시하는 정산 및 기관에 대한 감사를 대비하여 협약 관련 서류, 연구비 증명자료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등 다양한 증명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져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증명자료들을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 등록함에 따라 A대학의 증명자료 보관 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자료의 보관을 위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약 10평 규모의 사무실 2~3개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증명자료의 정리를 위해 업무 중 상당시간을 소요하던 인력들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어 보다 질 높은 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소개한 국민불편 해소 과제 외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2년 8월 31일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붙임】 과제별 담당자 현황



연번	과제명	담당(연락처)
1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미현 (044-202-5619)
2	재직경력·연수이력 등 다양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범위 확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박정은 (044-203-6318)
3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사무관 서지원 (044-201-8215)
4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서기관 유동완 044-202-3564
5	장애인을 위한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이선식 (044-202-2414)
6	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허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사무관 김태홍 (044-201-3858)
7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권용덕 (044-203-2870)
8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정범위 의료·통신분야까지 확대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사무관 위지성 (044-205-2813)
9	국가 R&D 과제 연구비 증명자료 시스템 등록 시 보관의무 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사무관 박현욱 (044-202-6957)